



#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글씨 봉헌 싸워이겼다

미제가 강요한 지난 3년간의 조선전쟁은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고한 시련의 나날이었다.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주범은 백수십여만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의 패배도 몰랐다고 하면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이었다. 미국은 공화국과의 전쟁이 자기 나라 육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15개 추종국가군대와 남조선피뢰군,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포함한 200여만군의 대병력과 막대한 량의 최신전투기들을 다 동원하였다. 수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너무나 대비가 되지 않는 이 전쟁을 두고 세인은 공화국에 우려와 동정의 시선을 보내었다.

그러나 력사가 《보병총과 원자탄과의 대결》이라고 명한 조선전쟁에서 승리의 기발을 휘날린것은 청소한 공화국이었다.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쓰디쓴 패전의 고배를 마시고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한것은 조선을 잘못 보고 덤벼들었던 미국이었다.

과연 무손 힘의 공화국인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시고 위대한 전승신화를 력사에 자랑스럽게 새길수 있게 하였는가.

그것은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었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공화국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이고 절대로 빼앗길수 없는 운명과 미래의 집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해방된 이 땅에 인민의 새 나라를 일떠세워주시으로써 대대로 억눌리고 천대받던 조선인민은 비로소 나라의 주인, 공장과 땅의 주인으로 되어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난생 처음 사람대접을 받으며 새 조국건설의 주인이 되어 공장을 돌리고 자기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짓던 행복의 5년을 공화국인민 누구인들 잊을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가혹스러운 미제와 추종세력들이 그 행복의 세상을 빼앗으려고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으니 이 불을 어찌 용서할수 있겠는가.

누구나 참다운 삶과 행복을 빼앗으려는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복수심을 안고 분연히 조국방위전에 떨쳐나섰으며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감악봉의 육탄영웅으로 오늘날 만사람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강호영영웅을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그는 해방전 율곡군의 두메산골에서 태어났다. 조질을 깐 귀틀집아궁이에서 태어난 화전민의 아들에게 차려진것이란 토스레웃이 전부였다. 사시절 토스레웃 한벌을 걸치고 살아온 그는 《갑상저지》로 불리우며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받아야 하였다.

그러던 그는 조국이 해방된 다음에야 비로소 저주로운 토스레웃을 벗어던질수 있었다. 하여 그는 귀중한 조국을 총대로 지키려고 인민군대에 입대하였으며 준엄한 전쟁시기에는 자신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었던것이다.

피눈은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 리수복영웅과 원족다리와 두팔에 심한 부상을 입고 몸을 가눌수 없게 되자 최후의 힘을 모아 턱으로 중기관총의 압력을 눌러 적들에게 불벼락을 안긴 조국실영웅, 유격투쟁을 하다가 적들에

제 체포되어 갖은 고문과 악형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최후의 순간에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웨친 조국유격투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유명무명의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이 목숨보다 더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싸웠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의 가슴마다에 깊이 간직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공화국을 반드시 이긴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이었다.

아무리 정당한 위업이라고 해도 승리에 대한 신심이 없으면 마음은 흔들리게 되고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갈수 없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침략자들은 공화국인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자기 수령, 자기 제도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버리려고 갖은 망설음을 다 내들리며 악착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인민들은 추호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장군님이 계시어 우리 공화국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이 간직되어 있었다.

신묘한 전범과 탁월한 명군술로 일제를 때려부시고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 절세의 예자, 해방된 조국땅에 인민의 새세상을 세우주신 인민의 아버지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하기에 공화국의 인민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은 곧 조국이었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제가 불의에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을 때에도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 못 보았다고 하시며 전체 인민을 조국수호전쟁에 불리우시었다. 그리고 전쟁이 한창일 때에는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며 전선의 군인들을 소환하여 대학으로 보내주시고 전후복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 까지 작성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담력과 배짱, 승리의 기상은 온 나라 인민들, 전체 인민군장병들에게 커

다란 힘과 용기를 주었다.

불타는 고지마다에 울리던 《김일성장군의 노래》,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맹세문에서 명하고 결사전에 나아가던 인민군용사들의 영웅한 모습들,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 법동농민의 목소리, 우리가 싸워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올린 락원의 녀망인.

이것이 전쟁을 이기는 조선의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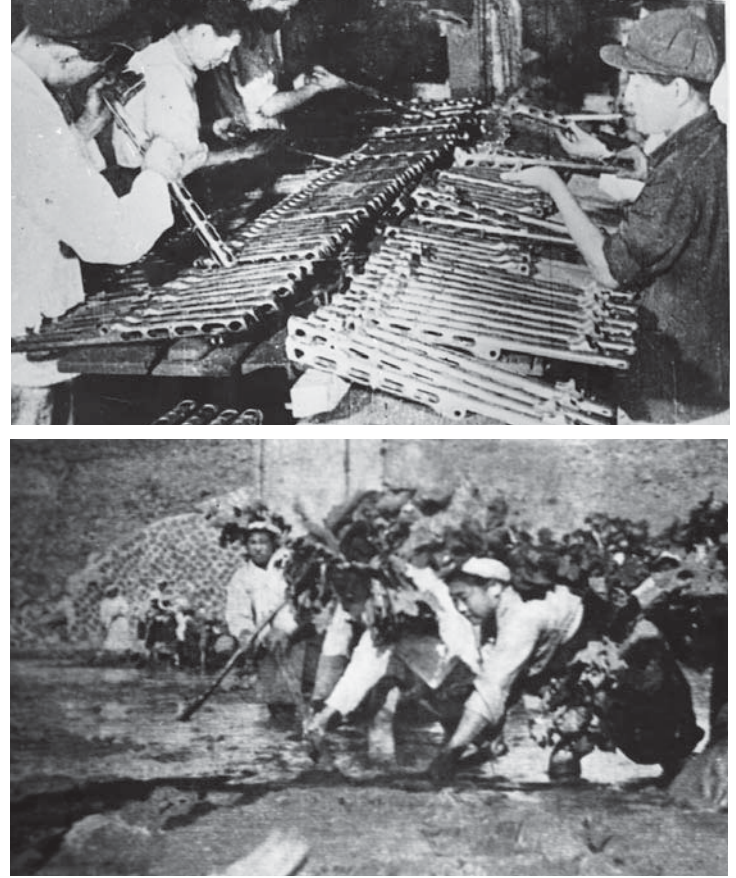
3년간의 전쟁이 공화국의 승리를 이끌고 전승의 축포가 이 하늘에 날아오른 때로부터 어떤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이 피로써 지켜낸 공화국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강대한 사회주의나라, 인민의 락원으로 행성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지금 적대세력들이 이 나라 인민들이 피로써 지켜낸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압살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지만 불의가 정의를 이길수 없다.

절세의 위인을 모신 공화국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기록하였던것처럼 오늘날도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 력사에 승리와 영광만을 새겨갈것이다.

조한규



**단상**

**한쪽의 공화국기를 보며**

나는 지금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된 한쪽의 공화국기앞에 서있다. 무려 270여군데나 총란에 뚫리고 파편에 찢긴 이 기발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1211가지와 마주한 가칠봉을 점령하기 위한 전투에서 12명의 인민군용사들이 적탄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손에서 놓지 않고 휘날리며 돌격로를 열어나간 기발이다.

무엇때문에 인민군용사들이 피흘려 쓰러지면서도 손에서 공화국기발을 놓지 않았던가.

돌아보면 나라를 빼앗긴탓에 땅주노가 되어 온갖 불행과 고통, 재난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인민이다.

이러한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창건하시므로써 인간의 참다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공화국기발, 그것은 다시는 빼앗길수 없는 공장과 땅, 학교와 고향마을이었고 인간의 참다운 삶과 행복을 안겨준 귀중한 조국,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었다.

하기에 준엄한 전화의 나날 인민군용사들은 공화국기발을 높이 들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사람이 늙으면 추억에 산다는 말이 있다.

내 나이 이제는 아흔이 훨씬 넘어 근 한세기를 이어오는 수많은 추억들이 있지만 그속에서도 조국을 지켜 화신길을 떠나들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일들은 70여년이 지난 오늘도 어제이런 듯 삼삼히 떠오르곤 한다.

잊을수 없는 전화의 그 나날들을 더듬어보느라 김통재라는 우리 분대에 있던 의용군출신대원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곤 한다.

지금도 홀어머니와 나이던 녀동생 연미가 자기를 공부시키겠다고 안해본 고생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닦던 그의 모습이 눈에 삼삼하다.

대학을 다니다가 서울이 해방되자 의용군으로 입대한 그는 참으로 호기심이 많은 대원이었다.

젊은이들은 행군과 전투의 실참마다 우리 분대는 물론 종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질문소나기를 막곤 했다.

그의 질문은 모두 공화국의 인민적식들과 그 덕을 보는 인민들의 실생활에 대한것이었는데 누구나 그의 물음에 성심성의로 대답해주곤 하였다.

그럴 때면 《이제 전쟁이 끝나면 우리 어머니랑 연미랑 그런 고 녀겨레모두에 대해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을 기억해주는 기치였고 따사로운 사랑의 햇빛이

못한 참된 진리를 체득할수 있었을 것이다.

인민정권에 저는 매혹되었습시다.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위하여는 말그대로 인민의 정권이지요. 인민정권은 당장에 은을 내지 못하는 나의 론문까지도 소중히 여겨야 마지 제것인양 도와주고 이끌어주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인민정권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무엇때문에 망설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묻자 그는 한숨끝에 이렇게 말을 이었다.

《이 구호를 보십시오.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이! 했는데 손에 호미 한번 쥐어보지 못한 제가 근로인테리가 될수도 없지요. 그러니 로동자, 농민의 국가에 제가 설자리가 과연 있겠는지...》

그제야 모두가 로학자가 망설이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

그후 통제는 종대는 물론 편대적으로도 소문난 싸움꾼으로 성장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빨리 미국놈들을 때려부셔야 우리 어머니랑 연미랑 좋은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게 될테...》

하지만 그는 그렇게 바라던 전승의 날을 보지 못했다. 전승을 향해 앞두고 벌바산계선에서 전사했던것이다.

전사한 그의 품속에서 나온 가장자리가 다 닳은 수첩에는 이런 글이 써여있었다.

《의용군으로 탄원한것은 나의 일생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정의로운 선택이다. 하루하루 나의 가슴속에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인 공화국에 대한 사랑과 애착, 이 전쟁에서 공화국이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신심이 날로 커만 간다. 이제 한생 자식들을 위하여 고생양친 어머니와 사랑하는

는 연미는 승리한 공화국의 품에서 비로소 사람다운 생활,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임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품을 위해 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리라.》

나는 때로 자신에게 물어보곤 한다.

무엇을 위해 전화의 나날 우리는 불뿜는 적의 화염을 향해 주저없이 달려나갔고 가혹스런 적명크림에 슈투탄을 안고 서슴없이 뛰어들었던가고.

바로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인 우리 공화국을 위해서였다.

공화국은 그대로 우리의 삶이었고 전체 조선인민의 행복이었던 미래의 전부였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받아안은 행복한 새 삶이 그러도 소중해 그 품을 지켜 목숨도 웃으며 바친 우리 전화의 세대들이다.

그런 우리를 위대한 전승세대라 부르는데는 이유가 있다. 자기의 지식을 로동자, 농민의 리익을 위하여 바치는 그런 학자가 바로 근로인테리입니다.

인민정권은 선생님은 과학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기쁘게 맞이합니다.》

이렇게 되어 로학자는 우리와 함께 북행길에 오르게 되었다.

나는 그때 임태한지 불과 몇달 되지 않은 통제가 그렇듯 몰라보게 성장한것이 무척 놀라웠다.

전쟁로병 손병도

**암흑의 땅에 비쳐든 찬란한 해빛**

조국해방전쟁의 잊을수 없는 화폭들중에는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하고 피뢰중앙기발에 공화국기를 휘날렸던 력사의 화폭도 있다.

그때의 감격에 대하여 먼 후날 한 인민군장교님은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다.

《...술들의 기발을 끌어내려 갈기갈기 찢어 내동명이었다. 피뢰기발은 결례조박이 되어 어두운 《중앙청》 뒤구멍으로 날아떨어졌다. 제양대에는 우리의 공화국기발이 창공을 가르며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기발은 새벽바람에 휘날리며 6월 6일의 정점까지 올랐다. 그 순간 나는 걸잡을수 없는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목이 딱딱하고 눈앞이 흐려져 더는 울러다 볼수가 없었다. 검은구름이 뒤덮여있던 서울의 하늘, 죽음의 마굴이었던 서울의 하늘에 3천만인민들의 한결같은 녀름을 안고 휘날리는 공화국기발, 나는 두주먹으로 흐르는 눈물을 마구 문지르며 공화국기발을 울려다보았다.》

《중앙청》건물로 말하면 지난날 우리 나라를 강점한 썩나라것들이 가혹스런 조선총독부를 들어앉았던 원한의 상징이었고 해방후에는 미제가 조선총독부간판을 미군정청으로 바꾸어 달고 포악한 군정을 실시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무참히 유린하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후에는 리승만연도가 틀고앉아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하수노릇을 하던 소굴이었다.

바로 그 식민지통치의 아성에 랑총색공화국기가 펄럭 휘날리게 되었던것이다.

서울이 해방되며 이어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남조선의 여러곳들에 연이어 공화국기발이 휘날렸다.

해방된 남조선의 곳곳에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이 수립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활짝 꽃피어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해방된 남조선인민들에게 행복을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온갖 어려운 수련을 기술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이 일어난 다음날인 주체39(1950)년 6월 26일 일군들을 부르시고 6월 밤이 깊었지만 긴급하게 토의할 문제가 있어 동무들을 불러놓고 반공적으로 넘어간 우리 인민군대가 현재 개성과 용진, 연안을 해방한데 이어 문산, 강릉계선까지 진격하였으며 서울의 《관문》이라고 하는의 정부도 해방하였다고, 이제는 서울해방도 눈앞에 막두하였으며 앞으로 가까운 시일안에 남조선의 전반적지역들이 해방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알려주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이에 맞춘 남조선의 해방지역들에 인민정권기관들을 복구하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며 인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주체39(1950)년 6월 26일에는 남해 개성시 남조선인민위원회가 복구되고 그 다음날에는 남연백군(당시)에서 또 다음날에는 용진군에서 립시인민위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연이어 서울과 남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

북도, 경상남도립시인민위원회들이 조직되어 자기의 활동을 개시하였다.

또한 해방된 지역들에서는 토지개혁이 실시되어 농민들이 진정한 땅의 주인으로 되게 되었다.

대대로 지주의 머슴살이를 하던 충청북도 보은군의 한 농민은 인민군대에 의해 해방이 되어 나라의 참다운 주인이 된데다가 땅까지 분어받은 감격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감사의 편지를 올리였다.

《...저에게 장군님이 땅을 주셨나이다.

해방된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칭송하여 농민들이 인민정권기관들에 보내온 감사문과 결의문만도 무려 4 000여통에 달하였다고 한다.

정녕 해방된 남조선지역들에 휘날리던 랑총색공화국기는 남녘겨레모두에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칭송하여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을 기억해주는 기치였고 따사로운 사랑의 햇빛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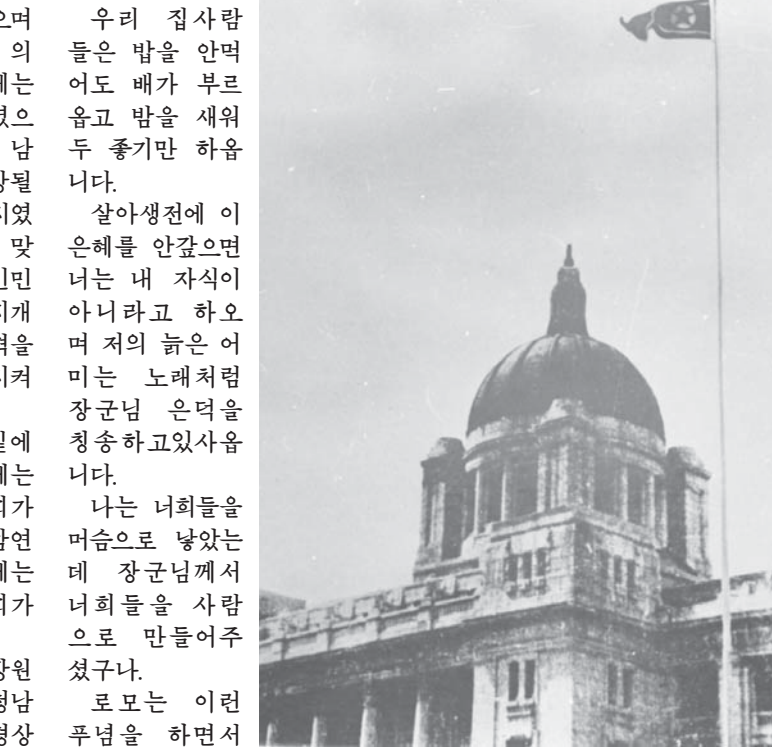
본사기자 유금주

우리의 집사람들은 밤을 안막어도 배가 부르웁고 밤을 새워두 좋기만 하습다.

살아생전에 은혜를 안갠오직 내 내 자식이 아니라 하고오며 저의 늙은이 미는 노래처럼 장군님을 언덕을 칭송하고있습다.

나는 너희들을 머슴으로 낳았는데 장군님께서 너희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구나.

로모는 이런 푸념을 하면서



**고마운 삶의 품을 지켜**

이때 통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선생님, 동서방을 다 다니면서 산천수운을 겪으신 선생님앞에서 외람된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아직까지 우리 정권을 잘 모르십니다.》

그의 말에 로학자는 눈이 등그레졌다.

《저의 말을 선생님은 어느 정도 리해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민의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해방후 20개 조정강을 발표하시었는데 그 한조항에 과학과 예술에 종사하는 인사의 사업을 장려할뿐 아니라 그 실천을 위한 방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인테리라 하여 삶이나 고품위를 쥐고 일을 하는 인테리라는 말이 내세워주시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 큰 사랑과 배려를 안겨주는 위대한 아버지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비록 넓은 품이지만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을 후대들에게 물려줄뿐 아니라 고마운 우리 제도, 참다운 인민의 세상인 공화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려하시는 우리 전쟁로병들의 하나같은 마음이다.

전쟁로병 손병도